

신안 '당산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군, 흑산권 등 4개 권역 89곳 생태자료 수집...온라인 전시관 개설 섬 생물 자원화 등 추진 "당산림 역사적 가치·섬마을 특성 알릴 것"

유네스코 신안 다도해 생물권 보전지역에 자리 잡은 '당산림' 89곳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 (<https://www.shinan.go.kr/home/jaseng/>)이 개설됐다.

1004섬 신안 마을 곳곳에 있는 신양 숲인 당산림은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자원이다.

신안군은 마을을 지켜 주는 신인 동신(洞神)에게 지내는 당제(堂祭)에 대한 인문학적 자료를 정리해왔다.

이후 당산림에 대한 체계적인 생태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신안군은 당산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방치되고 있는 당산림 복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해왔다.

영상 자료를 제작하고 보전·복원·홍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모아왔다.

신안군이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공개한 당산림 자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신안 흑산권 9곳과 북부권 3곳, 중부권 3곳, 남부권 6곳의 당산림 정밀 기초조사를 해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당산림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당산림의 사진을 목록화했다.

당산림 자료를 집대성한 온라인 전시관 '신안생물권보전지역 누리집'은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어 번역본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신안 당산림을 설명하고, 4개 권역별 당산림의 분포 현황을 소개했다.

당산림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당산림 89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전자책 형태로 공개했다.

신안군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당산림 자료를 구축하고, 섬 생물 자원화, 생태계 정보 서비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신안 당산림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올리기



신안 생물권 보전지역의 당산림을 소개하는 누리집에서 만날 수 있는 흑산도 심리 마을 당산림 전경. <신안군 제공>

위한 기초조사 작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당산림의 역사적 가치와 섬마을의 생태적 특성을 널리 알리겠다"며 "유네스코 신안 다도해 생물권 보

전지역의 소중한 핵심 자연 자원인 당산림을 명승으로 지정한 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ilee@kwangju.co.kr

24시간 동파 민원 상황실 목포시 15일~내년 3월 15일

목포시가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24시간 동파 민원처리 상황실' (061-270-8564)을 운영한다.

동파 민원처리 상황실은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시 수도과는 겨울철 동파, 동결 예방·조치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수도계량기와 외부로 드러나 있는 수도관을 현 옷, 스티로폼, 헝겊 등으로 감싸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또 강추위가 지속하면 수도꼭지를 틀어 소량의 물을 흘려보내 동파 및 수도관이 어는 것에 대비할 것을 권장했다.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약 20도의 미지근한 물에서 점차 뜨거운 물로 수도관을 녹여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수도 시설이 동파되면 수도물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겨울철에도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해남군 "벼 경영안정 대책비 신청하세요"

24일까지 타작물 재배·벼 재배감축 협약 농가도 신청 가능...지난해 ha당 53만7000만원 지급

해남군이 오는 24일까지 벼 경영안정 대책비 신청을 받는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해 경영 안정에 보탬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해남군은 전국에서 논벼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다.

올해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급을 위한 해남군의 사업비는 57억2000만원으로, 지난해(57억8900만원)보다 소폭 줄었다.

전남도 벼 경영안정 대책비 예산 568억1900만원의 10% 비중을 차지하며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

경영안정 대책비를 받을 수 있는 벼는 면적이 0.1ha부터 2ha까지이다.

해남군은 1ha당 지급 단가를 결정하고, 다음 달에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ha당 지급 단가는 53만7000원으로, 9741가구의 1만790ha 면적을 대상으로 57억8900만원을 지급했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해남에 살며 전남에서 벼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면 받을 수 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나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에 참여하는 농가도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들은 다른 시·군 경작 농지 조회와 신청 농

지 경작 사실 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

오는 24일까지 벼 경작 농지 내역을 쓴 신청서류를 주소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내면 된다.

한편 올해 해남지역의 벼 재배면적은 1만8990ha로, 지난해(2만944ha)보다 9.3%(-1954ha) 줄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을 통해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가공,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제8회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한 보길도 윤선도 작은 도서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 윤선도 작은도서관, 책 읽는 지자체 '대상'

완도군이 '제8회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에서 보길도 윤선도 작은 도서관이 지자체 부문 대상을 받았다.

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후원하는 이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한 지자체에 상을 주고 있다.

완도군의 작은 도서관 부문 수상은 처음으로 섬 주민들이 일상에서 책을 자유롭게 만나 즐길 수 있는 친화적 문화 공간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완도군은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 개최와 더불어 도서 지역의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독서

동아리 활동과 희망 도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독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독서 인구 저변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2014년 신지 햇살 작은 도서관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1읍면 1도서관' 사업도 추진 중이다.

한지영 완도군 문화예술과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서관이 독서 친화적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 목포대 후문에 '누구나 상점' 개장

벼룩시장·공연·창업동아리 성과 전시 등 다양

무안군이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목포대학교 후문 상권에 '누구나 상점'을 문 열고 개장식을 진행한다.

'누구나 상점'을 내건 이번 행사는 청계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본 사업인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의 준비사업 성격으로 마련됐다.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역량을 강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누구나 상점'은 1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을 펼칠 수 있다.

무안군 청계면 도립목포대학교 후문 상권 일원에는 청계나눔마켓(누구나 상점)을 만들었다.

청계나눔협동조합을 조직화하고 상권 활성화에 위한 디자인 워크숍도 열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누구나 상점'의 시작을 알리는 이날 행사에는 목포대 학생과 대학로 상인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참여한다.

벼룩시장과 창업동아리 성과 전시, 거리 공연 등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다양하게 마련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된 청계나눔마켓 '누구나 상점' 개장에 도움을 준 목포대와 주민협의체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청계면에 국토교통부 공모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을 반드시 선정되게 해 지역 발전 및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행재활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 환자맞춤별 치료를 통하여 회복과 통증완화를 돕습니다. ”

일반
요양

중풍
재활

수술후
재활





의학·한의학 협진

의학·한의학 협진을 통해 침치료, 부항, 침약 등의 한방 치료를 제공하여 회복과 증상완화를 돕습니다.

질화에 맞는 치료 제공

중추신경계 치료와 근골격계 추나 치료, 통증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기능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를 병원 1층에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 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신안동 2-3) 062)720-2000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번호 제190816-중-388919